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제6회 한용교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개최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시상식 함께 열려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회장 이권식)은 지난 달 6일 코리아디자인센터 다이닝홀에서 제6회 한용교 패키지디자인상 및 제 14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시상식을 가졌다.

한용교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는 일반부문의 이복영 이연디자인그룹 대표, 단체부문의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부문의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윤미경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문의 팩스타 대상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은 (주)팬택의 '핸드폰, 슬림시리즈'가, 학생부문의 대상인 산업자원부 장관상은 주전자 패키지인 '올리빈 쿡'을 디자인한 경기대학교 이주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일반부문의 팩스타상에는 삼성전자(주)의 '삼성노트PC패키지', 유니레버코리아(주)의 '바세린 키즈', (주)농심의 '자연지향 땅칩', (주)한국야쿠르트의 '카페프레소' 등 26개사가 수상했다. 또 학



▲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제6회 한용교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



생부문에서는 금상 5명, 은상 5명, 동상 8명 외 특선 1백7명과 입선 1백88명이 수상했다.

장운호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심사평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학생 부문 작품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수상자에 대한 Data Base화를 추진, 디자인관련 기업체에게는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 출품자에게는 출품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TRA

식품전, 아시아 톱5 전시회로 부상

해외바이어 2천명 대거 유치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련 종합전시회인 2006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6)이 “Fine Food Fine Future”라는 슬로건아래 이번 달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개최된다.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 최초의 UFI(국제전시연맹) 인증을 득한 식품전시회로서 KOTRA(사장: 洪基和)가 1983년도에 최초로 개최한 이래 올해로 24회째이다.

실제로 금년 서울국제식품전은 참가업체 측면에서 지난해의 5백60개사 대비 34% 증가한 7백90개사에 이르고, 전시면적도 지난해의 9백20부스 대비 30% 증가한 1천2백부스 규모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싱가포르의 FHA, 일본의 Foodex, 홍콩의 HOFEX, 대만의 Food TAIPEI에 이어 톱5 식품 전시회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2006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업체의 경우 린나이, CJ, 동원F&B, 샘표 등 4백60여개사가 참가하며, 외국의 경우 지난해 28개국 2백39개사에서 40여개국 3백30여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Mr. Jose Montilla Aguilera(호세 몬티야 아길레라) 상공관광부 장관을 대표로 총 72부스 규모의 대규모 국가관을 구성해 참가하게 되는 등 전시회의 국제화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2006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무역 중심의 식품관련 종합전시회로 국내외 식품 및 식품기계 신기술 개발동향,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중소기업 유통망 확보, 식품산업 트렌드 동향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KOTRA의 1백여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치한 2천명 내외의 해외 바이어와 4만명의 국내 식품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약 3억5천만불의 수출 상담과 1억불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KOTRA는 서울국제식품전을 통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확대와 외국 식품업계의 국내 진출 확대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다년간 축적해 온 전시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국제식품전을 국내외 식품업계의 글로벌 마케팅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최대의 포장기자재 전문전시회인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의 병행 개최로 식품과 포장산업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제18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개최

이번 달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국내외의 우수한 플라스틱·고무 관련기와 원료 및 제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주)한국이엔엑스와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내플라스틱·고무산업의 발전과 국제 교역 진흥을 위해 산업자원부, 경기도, 중소기업청,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번 달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제18회 국제 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인 KOPLAS 2006(Korea International Plastics & Rubber Show)을 개최한다.

지난 1981년 첫 회를 시작으로 내년에 18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KOPLAS는 2회에서부터 12회까지는 매년 개최되다가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제1회 전시회에는 5개국에서 39개사가 출품을 했으며 2만2천5백명이 참관한 이래, 18회째가 되는 KOPLAS 2006은 “Make it More, Make it Plastics”라는 슬로건 아래 19개국 2백31개사(국내 대리점 60개사를 미포함)가 출품, 국내 플라스틱 및 고무 산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제7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전경



업의 최첨단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 내국인 3만여명과 해외 바이어 1천여명이 내방해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품품목으로는 사출성형기, 압출성형기등의 가공기계와 휘더, 온도조절기, 철판, 취출기, 분쇄기 등의 합리화기기를 비롯한 인쇄기, 접착기, 절단기, 포장기계 등의 후가공기계와 컨트롤러, 센서, 스크루, 실린더 등의 계시 및 부품, 제품의 시험 및 측정기기, 관련전문서적 및 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품되어 국내 플라스틱·고무 산업 관계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KOPLAS 2006은 국내외의 우수한 플라스틱·고무 관련 기자재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특수 수지 원료에서부터 관련 서비스까지 플라스틱과의 연계된 모든 산업군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전시를 통해 선진산업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상호 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해 우리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KOPLAS 전시회 리서치를 통해 참가업체들의 내수판매확대는 물론, 수출증대와 기업이미지 홍보, 기술정보 수집, 신시장 개척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의 개인용단말기(휴대폰), LCD, 자동차, 반도체, 무선단말기 등의 국내 대표산업들의 플라스틱·고무 이용도가 눈부시게 성장됨에 따라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가공기계들의 무인자동화와 초정밀, 초고속 및 초대형 성형기계 등 기술집약된 가공기계의 출품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가공에 따른 자동화 설비 그리고 관련부품은 물론 시험측정기기 및 관련전문 서적, 해외 전시회 품목들이 출품,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KOPLAS 전시회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의 1만4천4백90㎡(4천3백83평)의 규모로 개최된다. 중량품이 많은 KOPLAS 전시회는 그동안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한정된 공간과 충분치 못한 시설에서 개최됐던 전시회를 KINTEX로 옮기면서 출품업체들과 관람객들에게 안락한 전시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동북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최대 전시장인 KINTEX에서 개최되는 만큼 해외바이어 유치에 있어서도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됐다. 더욱이 최근 급성장하는 IT산업과 동반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KOPLAS 2006 개최를 계기로 우리 플라스틱 산업계는 선진 플라스틱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 양적 팽창에 버금가는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세계 각국의 외국제품과의 상호비교를 통한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KOPLAS 전시회는 지난 2004년 6월 국제전시산업협회(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로부터 국내 기계관련 산업전시회로서는 최초로 UFI인증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과 (주)한국이앤엑스는 긴밀한 협조아래

유관단체

지난 2004년부터 독일의 K-2004 전시회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ASEANPLAS, 일본의 IPF, 중국의 DMP 2005, 터키의 PLAST EURASIA, 얼마전에 끝난 우크라이나에 플라스틱, 금형전시회 등 18개의 해외 유명 전시회에 출품해 KOPLAS 전시회의 홍보와 더불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해외바이어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회 참가업체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KOPLAS 2006 홈페이지(www.koplas.com)를 통한 KOPLAS Cyber 전시회를 통해 정보를 자유로이 얻을 수 있도록 전시회 개요, 세미나 일정, 부스 배치도, 출품사 및 전시품의 정보/사진, 출품업체 현황 등을 자세하게 수록해 연중 서비스하며, 각 출품사의 홈페이지와도 링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본 전시회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원거리 관람객을 위해 토, 일요일에도 전시한다. 상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주최측인 한국이엔엑스 KOPLAS 2006 사무국(전화.(02)551-0102)이나 홈페이지(www.koplas.com)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포장기계협회	해외전시회 한국관 사업 활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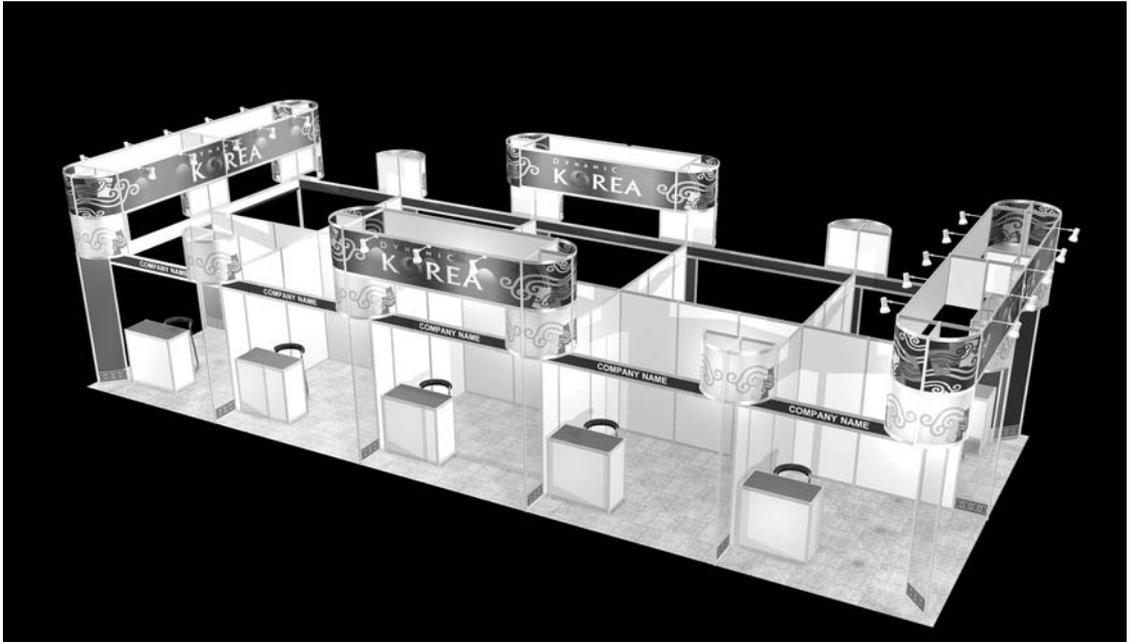
한국관 구성 및 참가사 적극 지원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포장기계업체들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전시회주최와 해외 포장전시회 한국관 사업을 매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전시회인 KOREA PACK 전시회를 매년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2006년도 3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의 규모는 5백개사 1천2백부스 규모의 국제전시회로 성장해 한국의 대표 포장전시회로 자리매김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포장기술과 포장기계의 해외진출에 발판을 만들었다.

한편 포장기계협회는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관은 물론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국가관을 구성하거나 해외 전시 주최자와 협회가 공동 협력 하에 한국관을 구성, 국내 포장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전시의 국가관 사업은 포장기계협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의 하나로 지난 1999년도 중국 상해 전시회를 시작으로 협회는 매년 중국의 지역별(상해, 북경, 광주) 포장전시회를 위시해 독일의 inter pack, 일본의 JAPAN PACK, 러시아 모스크바의 rosupak 등 세계최대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해 참가 수출 촉진은 물론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년 2006년도에는 중국 광주에서 이번 달 7일부터 개최되는 SINO PACK 2006 전시회가 준비 계획 중이며 이 전시회는 중기청 자금지원으로 국가관(11개사 참가확정)이 이미 준비 완료 됐다. 또한 오는 4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북경의 최대 포장 전시회인 PACKAGING 2006 전시회에는 협회와 주최자와의 공동협력으로 국가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6월 19일부터 개최되는 러시아 모스크바 rosupak



▲ 한국포장기계협회 해외전시회 한국관 조감도

2006 전시회는 작년의 국가관구성 성과가 매우 큰 관계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관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역시 중기청의 자금지원이 확정된 전시회이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거대한 소비시장인 인도의 포장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상 중에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포장전시회에도 한국관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10월의 PACK EXPO(Chicago)와 Tokyo Pack 2006전시회에는 대규모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귀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3월의 Sino Pack 2006 전시회에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중국시장 개척에 일환으로 중국 상해 및 북경지역 전시회 참가에 이어 중국 광둥지역 전시회의 추진사업으로 중기청의 전시 참가료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한국관 사업으로 (주)한국크리에타, 을성정공, (주)가성팩, (주)선진에스엠, 한국뉴매틱(주), (주)스카이스프트켈, (주)천세도요기계, (주)리팩, (주)코마스, (주)경연점람, KPMA 등 11개회사가 참가하기로 확정됐다.

포장기계협회 최상식 회장은 “금년도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많은 회사가 참가해 한국의 포장기술과 기계를 세계에 알리고 국위 선양은 물론 판매촉진 등 해외 시장개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장기계협회는 완벽한 한국관의 구성과 참가사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락:031-788-7081)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0년까지 재활용율 75% 달성 목표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회장 이종원)는 지난 달 16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통과했다.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는 지난 해 63개 회원사가 증가하는 등 재활용실적은 9만5천3백30톤으로 재활용의무량 8만3천2백40톤을 14.5% 초과 달성했다.

앞으로 협회는 국내 PET병 총 발생량의 95%, 재활용량의 98% 점유해 국내 총 발생량 대비 2010년까지 재활용율 75% 달성할 목표로 PET병 재질 및 구조개선, 재활용기술개발, 재생원료 수요시장 확대를 통해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PET병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ET병 재활용 통계관리 시스템을 공제조합



▲ (사)한국PET병재활용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중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폐 PET병 재생원료의 품질 분석을 통해 복합 재질 폐 PET병의 재활용 공정 손실률을 조사하고 해외 선진 재활용시설 및 시스템 산업시찰을 해왔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이철순 이사장 재선임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철순)은 지난 달 16일 팜그린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호 의안인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제2호 의안인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3호 의안인 회계준칙 개정의 건, 제4호 의안인 총회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제5호 의안인 임원선임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총회로 임기가 만료된 이철순 이사장은 회원사들의 추대로 다시 재선임됐다.

한편 이철순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속에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제관업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조합의 회원사이기도 한 대륙제관이 14일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제22차 정기총회

입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 2억원의 손실을 입게 돼 힘든 여건 속에 대륙제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며 “우리 조합 회원사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어 대륙제관 박봉준 사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한국물류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협회 위상제고와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달 17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서병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물류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에 물류컨설턴트 양성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 및 물류중사자 보수교육과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실무성 제고 등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종 사업들을 대가없이 전개해 온 협회는 올해를 국내 물류산업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전환



▲ (사)한국물류협회 2006년도 정기총회

기로 인식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기능과 정책적 지원기능 및 기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최선의 노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으로 협회는 2006년 주요업무로 한국물류협회의 국내외 위상제고 및 국제교류협력활동 강화와 동북아 물류강국 구현을 위한 정책 지원활동 확대를 비롯, 산업계의 물류합리화 활동 지원 및 효율화 추진,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기능 및 한중일 물류협력활동 확대, 물류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훈련 활동 강화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유리제품 수요확대 주력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국현)은 지난 달 22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국현 이사장은 “조합은 지난 해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도 유리제품 수요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의 공장 가동으로 앞으로도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유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제44차 정기총회

유관단체

올해 조합은 공장자동화 감면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FTA 협상 추진 시 국내 유리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다회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노력, 전의공장에 원자재 보관창고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의공장 ISO 14000/9000 취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주)수석 전영각 차장과 안성유리공업(주) 오자영 차장이 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주)미도유리 엄주봉 사장과 (주)글라텍 배수근 사장이 조합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정반수 (주)대세기업 대표이사 등 감사패 수여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순재)은 지난 달 2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발표하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제18차 정기총회



지난 해 '신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기본 운영방침으로, 공동사업인 이천 농협 인삼포장용 판지상자 납품, KT&G 담배상자 납품 등으로 총 70억 4천7백65만원의 실적을 올린 조합은 전국 지함 업계 통계조사를 비롯한 기획조사 사업, 위탁 사업으로 지함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을 실시 해 왔다.

앞으로 지함조합은 공동판매 사업 및 공동구매 사업을 강화하고 위탁 사업을 운영, 자체능력 배가로 경영안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조합은 정반수 (주)대세기업 대표이사, 한채경 표준산업 대표에게 우수 경영자 표창상을, 이상희 한국아사히마시너리(주) 대표이사, 이철운 샘터문화의 대표 등에게 협력업체 감사패를 시상했다.

또한 삼기판지 김영상 부장 외 9명에게 모범근로자상을 수여, 지함인 장학생으로 조합원업체 근로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인쇄인 권익보호 사업 주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는 지난 달 24일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는 등 권익보호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수익계약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부적절하게 운영해 연중에 품목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체적 계약체결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여는 등 공동판매 사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원도인쇄정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제44회 정기총회

유관단체

보산업협동조합과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우수조합으로 선정, 시상했으며 협동조합육성공로부문으로 양지사, 한일인쇄출판사, 천풍전산인쇄사, 동남인쇄사, 동진문화사, 한일종합인쇄(주)가 공로패를, 강원인쇄정보조합이 표창패를 수상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신재경 씨와 조달청 김진일 사무관, 기협중앙회 이용표 본부장과 신승재 과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정기총회 개최

스티로폴 재활용 69% 목표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김흥기)는 지난 달 13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05년 협회 활동결과 보고와 함께 2006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협회는 스티로폴 재활용 목표 69% 달성, 생산자책임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의무량 초과 달성, 스티로폴 포장재 이미지 개선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정기총회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 93년 발족한 단체로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SH케미칼,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스티로폼 원료 제조업체 6개사와 스티로폼 포장재 가공업체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 및 재활용 의무생산자 279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스티로폼 포장재의 분리수거 이후 다양한 재활용 촉진활동을 통해 '94년 21%에 머물렀던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2005년 67%(잠정)로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22기 정기총회 개최

골판지포장 입지 확보, 시장 창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중우)은 지난 달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2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류중우 이사장은 “골판지 업계는 지난해부터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조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바탕으로 골판지 포장산업의 시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자”고 전했다.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22기 정기총회

유관단체

이날 행사에서는 제16회 골판지 포장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려, (주)광신평지의 김민배 상무이사가 포장기술상을 수상하고 유진판지공업(주)의 이의성 차장과 (주)동주의 전상철 대리가 모범포장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대로 가결됐다.

골판지 포장업체가 예년과 같은 과당경쟁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업계는 조합을 중심으로 무포장 농산물의 의무 포장화시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블루오션 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	---------------------

고효율 저비용 실천해 경영합리화 모색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태화)은 지난 달 17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태화 이사장은 “2005년 제지업계는 0.36%의 생산이 증가한데 반해 2% 가량 수출물량이 감소했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제44회 정기총회

다”고 지난해 업계를 평하면서 “고도성장으로 국내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제지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제지업계는 도전과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고효율과 저비용 생산을 실천하면서 경영합리화에 주력하는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을 실천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조합은 총회에 앞서 제지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대표자 및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두림제지 정병운 사장, 성림제지 서의용 사장 등이 중소기업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신대양제지 김희철 팀장과 아세아제지 김보연 대리 등이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T&D팬택 김태환 사장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안)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비롯한 출자금 전회의 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제4기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 명칭 변경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회장 정수용)는 지난 달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수용 회장은 “천연자원의 부족과 국토가 좁은 국내 여건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환경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금년 협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EPR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재활용체계 구축과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과 2006년도 재활용분담금 단가 책정 및 납부 절차(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06년도 재활용분담금 중 기타 재질인 단일재질 필름류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



▲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제4기 정기총회

유관단체

질대체를 장려하기 위해 전년대비 10원/kg 인하된 295원/kg으로 책정됐다. 특히 협회는 기존의 (사)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나근배 전무는 “현재 재활용 관련된 정부 부처 및 단체들의 명칭에 ‘자원순환’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기존의 협회 명칭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협회명을 개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용빈 씨제이라이온(주) 파트장 외 6명의 공제회원과 박운영 그린파이프 대표 외 10명의 일반회원, 최선경 용인시 환경보전과 외 2명의 지자체에 대한 회원 포상이 이뤄졌다.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롯데제과 변상만 실장 회장 선출

현재와 미래 공존하는 장으로 확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장 변상만)는 지난 달 15일 한국야쿠르(주) 대강당에서 열린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롯데제과 고객상담실 변상만 실장을 제 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변상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통환경과 소비자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기업은 이러한 급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밝힌 후 다섯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실천 방안은, ‘기업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능력 향상’, ‘식품 화학 의류 공산품 유통 제약 금융 등 현재 7개 분과위의 세분화, 전문화’, ‘OCAP Conference 기능 및 교류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기업, 학회, 정부, NGO 등 소비자와 관계된 각계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OCAP은 지난 1984년 발족, 올해로 만 22년을 맞는 총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대소비자 활동 단체로, 10개 분과위원회(식품 1, 2 / 화학 / 의류 / 공산품 / 유통 / 제약 / 금융 / 건설 / 가전)로 조직돼 있고, 1백50개 회원사 약 1천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OCAP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만족 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주요 활동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해 올바른 소비자문화를 확립하고, 또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 정부에 개진토록 하고,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또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시책, 외국의 선진 사례를 조사, 연구해 소비자, 기업, 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단체다. 한편 변상만 회장은 지난 해 12월 2일 열린 제1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는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12월 5일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위촉하는 ‘행정서비스현장 심의 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특히 이 위원회의 구성원(9명)은 그동안 교수, 소비자단체, 법률가, 공무원 등이었지만 기업체 인사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현판식 및 개원식 열어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화 추구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원장 노수홍)은 지난 달 2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원빌딩 3층에 사무실을 오픈,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노수홍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원장,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성봉 과장, 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 한국포장관리사회 이명용 회장 등 포장업계 관련 인사 40여명이 참석, 현판식을 갖고 개원을 축하했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은 포장재 사용의 감량, 감용화와 재사용,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추구하며 지난 해 11월 30일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올 1월 13일 환경부로 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한편,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상근임원으로 남병화 사무국장과, 김재우 이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전화 : 02-3471-5071/2



▲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현판식 및 개원식